

# ‘채무자’ 헥터 빛 깊고 명예회복 노린다



지난 시즌 20승 달성하고 평균자책점 3.48의 좋은 성적으로 맹활약한 헥터는 올 시즌 5경기에 등판 2승 1패와 평균자책점 5.47을 기록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2이닝 7실점’ 한화전 선발·주말엔 시즌 첫 피홈런 kt전 등판...임창용 1400탈삼진 도전

## T 타이거즈 전망대

헥터의 설욕전 무대가 펼쳐진다. 4승 2패의 흑자 살림을 한 KIA 타이거즈가 한화 이글스와의 홈경기에 이어 수원 원정으로 새로운 한 주를 보낸다.

KIA는 지난주 LG 트윈스와의 홈경기에서 3승을 모두 끌어 담은 뒤, 두산 베어스와의 시즌 첫 대결에서는 1승 2패를 기록했다. 두산전 무기력했던 2패가 아쉽지만 KIA는 22일 3개의 홈런 포함 장단 2 안타로 화풍이를 하면서 지난 한 주 4승 2패의 전적을 기록했다.

한화와 kt를 상대하게 된 이번 주 성적은 헥터의 어깨에 달렸다.

헥터는 24일 선발로 나와 한화 썬스와 리턴매치를 갖는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29일 kt전까지 두 차례 등판에 나서게 된다.

위기의 헥터에게는 보여줘야 하는 ‘쇼케이스’이자 앞선 패배의 아쉬움을 지워야 하는 ‘설욕전’이기도 하다.

## KBO리그 팀순위 (23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1	두산	24	18	0	6	0.750	0.0
2	SK	24	16	0	8	0.667	2.0
3	KIA	23	12	0	11	0.522	5.5
4	LG	25	13	0	12	0.520	5.5
5	넥센	26	13	0	13	0.500	6.0
6	KT	25	12	0	13	0.480	6.5
7	한화	24	11	0	13	0.458	7.0
8	NC	25	10	0	15	0.400	8.5
9	삼성	25	9	0	16	0.360	9.5
10	롯데	23	8	0	15	0.348	9.5

2년 연속 200이닝을 소화하는 등 견고하게 마운드를 지켜왔던 헥터지만 올 시즌 모습은 다르다. 위기의 순간이 너무 빨리 찾아오고 있고, 쉽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이닝 당 출루허용률은 1.78에 이르고 있다.

위기의 순간이 이어지면서 올 시즌 5경기에 나선 헥터는 26.1이닝을 소화하는 데 그치고 있다. 평균자책점은 5.47을 찍고 있다.

매서움을 더해 설욕전에 나서야 하는 헥터다.

헥터는 지난 12일 대전에서 한화와 시즌 첫 대결에 나섰다. 싹쓸이 3연패를 막기 위해 헥터가 출격했지만 이날 경기는 4-15 대패로 끝나면서 팀은 첫 스윙패를 안고 안방으로 돌아왔다. 이날 헥터는 ‘2이닝 7실점’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했다.

반면 헥터와 맞대결을 벌였던 한화 썬스는 이날 경기를 통해서 3연패 뒤 KBO리그에서의 첫 승을 신고하면서 분위기를 탔다.

헥터는 장소만 바뀌 한화 그리고 썬스와 힘겨루기를 하게 됐다.

kt에도 갇혀야 할 빛이 있다. 지난 3월 24일 2018시즌 개막전 선발로 나선 헥터는 이날 kt 타자들을 상대로 5.1이닝 9피안타 2피홈런 1볼넷 6탈삼진 4실점을 기록했다.

시즌 첫 피홈런이 아팠다. 1회를 탈삼진 두 개 포함 삼자범퇴로 막은 헥터는 2회 2사에서 볼넷을 하나 허용하기는 했지만 세 번째 삼진을 뽑아내면서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3회 첫 타자에게 홈런을 내주면서 시즌 첫 실점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 홈런은 kt 타자들을 깨운 한방이 됐다. 홈런의 주인공은 바로 kt의 막내, 고졸 투키 강백호였다.

강백호는 고졸 최초 개막전 신인 첫 타석 홈런 기록과 함께 개막 1호 홈런 주인공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막내의 한방에 힘을 낸 kt 타자들은 개막전을 5-4 승리로 장식했다.

이날 패전은 면했지만 헥터에는 아쉬움 가득한 출발이었다.

헥터가 설욕전에 나서서 이번 주 ‘판형’ 임창용은 KBO리그 통산 6번째 1400탈삼진에 도전한다. 올 시즌 7개의 탈삼진을 더 한 임창용은 1397탈삼진을 기록하고 있다.

아수진의 ‘내야 경쟁’도 관심사다. 이범호에 이어 지난 18일 안치홍까지 LG 윌슨의 공에 왼손 검지를 맞아 전례에서 이탈했다. 주전 2루수와 3루수가 자리를 비우면서 내야에는 백업들의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노련미’의 정성훈과 서동욱, ‘젊은 피’ 최원준과 황윤호 그리고 ‘절실함’의 홍재호까지 내야의 경쟁이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언니 쭈타누깁 ‘155전 156기’

156개 대회만에 LPGA LA 오픈 우승

동생보다 1년 먼저 데뷔 2013년 LPGA 신인왕

동생 쭈타누깁 7승... 18년만에 자매 우승자 배출

23일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휴젤-JTBC LA 오픈(총상금 150만 달러) 마지막 라운드에서 모리아 쭈타누깁(24·태국)이 첫 우승을 했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정작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이는 따로 있었다. 공동 24위로 이미 플레이를 마친 동생 에리아 쭈타누깁(23)이었다.

동생은 18번 홀에서 언니를 두 타자로 추격하던 고진영의 버디 퍼팅이 홀을 빗나가자, 눈물을 글썽이더니 모리아가 파 퍼팅에 성공하자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쭈타누깁’이라는 이름은 골프팬들에게는 ‘에리아 쭈타누깁’으로 잘 알려져 있다. LPGA 투어 통산 7승으로 한 때 세계랭킹 1위까지 오른 톱 랭커이기 때문이다.

언니 모리아는 그런 동생의 우승을 옆에서 지켜봐 왔다. 자신이 주인공은 되지 못했고, 동생의 우승을 함께 기뻐해야 했다.

나이는 한 살 많고 데뷔도 2013년으로 2년이 빨랐지만, 모리아는 한 수 위의 기량을 펼치는 동생의 그늘에 항상 가려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다.

모리아는 2013년 신인상을 수상하기는 했지만 이후에는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다. 2016년까지 우승과는 거리가 멀었고

톱 10도 힘겨웠다. 4위를 한 것이 가장 좋은 성적이었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잠재력을 발산하기 시작했다. 톱 10을 넘나들기 시작하더니 작년 5월 볼빅 챔피언십에서 공동 6위에 올랐다. 1주일 뒤 슝라이트 클래식에서는 공동 7위, 다음 대회에서는 공동 4위를 차지했다. 일주일 뒤 열린 월마트 챔피언십에서는 공동 2위로 우승권에 근접했다. 작년 11월 블루베이 대회에서도 준우승으로 우승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잡힐 듯 잡힐 듯한 우승은 쉽지 않았다.

이번 시즌 자국에서 열린 혼다 클래식에서는 제시카 코르다(미국)에 밀려 첫 우승의 기회를 날렸다. 롯데 챔피언십에서는 10위, 첫 메이저 대회인 ANA 인스퍼레이션에서는 공동 6위에 만족해야 했다. 모리아는 포기하지 않았고, LA 오픈에서 마침내 LPGA 투어 첫 우승컵을 안았다. 무려 156개 대회 출전만이였다.

모리아는 이번 우승으로 동생과 함께 투어 우승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사상 두 번째 자매 골퍼 우승자도 됐다.

통산 72승의 ‘전설’ 안니카 소렌스탐의 동생 샬로타 소렌스탐이 2000년 3월 스탠더드 레지스터핑(이상 스웨덴)에서 우승한 이후 18년 만이다. /연합뉴스



2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월서 컨트리클럽에서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휴젤-JTBC LA 오픈에서 모리아 쭈타누깁(태국)의 우승이 확정되자 동생 쭈타누깁(오른쪽)이 감격의 포옹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신수 6경기 연속 안타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내야 시프트를 무력화한 내야 안타로 6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추신수는 23일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시애틀 매리너스와 홈경기에 2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 4타수 1안타 1타점을 올렸다. 17일 탬파베이 레이스전 이후 6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간 추신수는 타율 0.247(89타수 22안타)을 유지했다.

시애틀 선발 에라스모 라미레스와 상대한 추신수는 1회 첫 타석에서 유격수 땅볼, 4회 두 번째 타석은 좌익수 뜬공으로 아꼈다.

추신수의 안타는 5회 세 번째 타석에서 나왔다.

팀이 4-2로 앞선 2사 3루에서 타석에 등장한 추신수는 4구째를 때려 3루와 유격수 사이 깊숙한 곳으로 타구를 보냈다. 좌타자 추신수가 담겨질 경우를 대비해 2루 쪽으로 이동해 수비하던 시애틀 유격수 진 세구라는 뒤늦게 몸을 던져 공을 잡았지만, 1루에서 추신수의 발이 빨랐다.

이번 시즌 추신수의 11호 타점이다. 텍사스는 7-4로 승리해 3연패에서 탈출했다. 한편, 시애틀을 6번 타자 우의수로 선발 출전한 스텔스키 이치로는 3타수 2안타 2볼넷으로 4차례 출루했다. /연합뉴스

KBO, 9년만에 외부 감사

정운찬 총재 체제로 새로 출범한 한국야구위원회(이하 KBO)가 9년 만에 외부 감사를 받는다.

KBO는 23일 “정운찬 총재의 목표인 ‘클린 베이스볼’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 강도 높은 외부 감사를 받기로 했다”며 “외부 감사를 통해 사무국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내외적으로 확인받고, 그동안의 회계 및 각종 계약, 사업 등에 잘못된 부분은 없었는가를 정밀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BO가 외부 감사를 실시한 것은 2009년 유영구 총재, 이상일 사무총장 시절 이후 9년 만이다.

이번 감사는 사무국의 단순 회계 영역만이 아니라 사업 및 중계권, 라이선싱 등 각종 계약 및 지원 업무의 공정성 여부, 특히 시비 가능성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게 된다.

KBO는 전문적이고 공신력 있는 회계 법인 선정 작업을 하고 있으며, 늦어도 5월 중순 본격 감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박인비, 2년 6개월만에 세계1위 탈환

LPGA LA오픈 공동 2위

‘골프 여제’ 박인비(30)가 2년 6개월 만에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자리를 되찾았다.

박인비는 2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휴젤-JTBC LA 오픈에서 공동 2위에 올랐다.

LPGA 투어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세계랭킹 3위인 박인비가 이번 대회 준우승으로 23일 자 세계랭킹에서 1위에 오르게 됐다”고 발표했다.

박인비는 2015년 10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했다. 박인비는 2013년 4월에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2014년 6월까지 1위 자리를 유지한 박인비는 스테이시 루이스(미국)에게 1위 자리를 내줬으나 2014년 10월에 다시 1위를

탈환했다.

이후로는 리디아 고(뉴질랜드)와 1위 자리를 주고받는 접점을 벌인 박인비는 2015년 10월을 마지막으로 세계 1위 자리에서 떨어진 바 있다.

2015년 11월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 이후 LPGA 투어 우승 소식을 전하지 못하던 박인비는 지난해 3월 HSBC 챔피언십에서 투어 통산 18승째를 거뒀다.

2016년과 2017년에 연달아 부상으로 시즌을 일찍 마감한 박인비는 3월 벅크 오브호프 파운더스컵에서 우승하며 재기 신호탄을 쏘았다.

이후로도 박인비는 메이저 대회인 ANA 인스퍼레이션 준우승, 롯데 챔피언십 3위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하며 호조를 보인 끝에 마침내 세계 1위에 다시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다. /연합뉴스